



수능 고득점 촛불 기원 조대여고 학생들이 수능시험(11월8일)에서 선배들의 고득점을 기원하는 촛불 퍼포먼스(꿈 이루어!!)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시 서석동 학교 운동장에서 지난 2일 열린 행사에는 2학년 470명이 참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아차 광주공장 '한국형 험비' 만든다

차세대 고기동 다목적 군용차 개발 계약... 2016년부터 실전 배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한국형 험비'가 생산된다. 기아차는 지난 2일 방위사업청과 차세대 군용 소형전술차량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앞으로 2년여 동안 미군 '험비'(HMMWV·High Mobility Multipurpose Wheeled Vehicle·고기동 다목적 차량)를 능가하는 한국형 전술차량 모델 개발에 들어간다. 생산은 광주3공장에서 맡는다.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2016년부터 전군 야전부대에 실전 배치된다. 기아차는 1차적으로 2000여대를 공급한다.

'한국형 험비'로 평가받는 이 차량은 국내 최초의 다목적 전술차량으로, ▲전투 지휘 ▲기갑 수색 정찰 ▲군집정비 지원 ▲포병관측 등 각각의 사용 목적에 맞게 디자인과 사양을 최적화해 개발된다.



기아차가 개발한 전투지휘 전술차량의 시제품 모델.

특히 강인한 디자인과 함께 기동성·생존성을 극대화해 군용차로서 최적의 상품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차종도 기본형과 장축형, 방탄과 비방탄 등으로 세분화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특징이다.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고, 76cm 깊이의 하천을 건널 수 있으며, 영하 32도에서 영상 43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다.

이밖에 고효율 최신형 엔진, 전자제어 자동변속기, 전자식 4륜 구동 시스템, 전술데이터, 전자파 차폐사양 등 군용차량에 적합한 첨단 기술과 다양한 특수사양이 적용된다.

그동안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1977년부터 다양한 군용차량을 생산, 지난해까지 모두 10만9000대를 군에 공급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차세대 소형 전술차 개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글로벌 군용차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차별 비리...공직타락 度 넘었다

전남도 투자 자문관 7억여원 국고 사기 법원 경매직원이 빌딩 헐값 낙찰 받아

광주·전남지역 공무원 범죄가 도를 넘어선다. 공직 윤리 실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 회령에서 국고보조금 사기, 공직 관련 뇌물수수, 업무 관련 고급 정보를 이용한 사익 행기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기능직에서 준공무원,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일상화되고 있다.

비리 공무원들은 횡령한公款이나 뇌물로 빚을 갚거나 고급아파트·외제차 구입, 생활비 등으로 탕진하고 있지만, 이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은 허술한 감사시스템으로 '세금 도둑'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높다.

8급 기능직 공무원의 '76억원 횡령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여수시는 여전히 그 파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는 뒤늦게 관련자 분석은 물론 회령 예방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시장 책

임핀'을 제기하며 촛불집회까지 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기업 대표와 짜고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전남도청 투자자문관 최모(43)씨를 최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8월 부도 위기에 놓인 중소 중장비업체 대표 김모(64)씨와 공모해 이 회사 공장이 수도권에서 영광군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속여 국가 보조금 7억7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경기도 고양시·화성시에 공장이 있는 것처럼 가짜 임대차 계약서와 공장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뒤 2013년 준공되는 영광군 대마산단단지에 이전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을 받아냈다. 최씨는 김씨로부터 24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회사는 보

조금이 지급된 지 한 달 만에 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무원 신분으로 경매 업무를 보는 광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원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법원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모 스포츠센터를 운영했던 이모(54)씨가 "집행관실 총무부장인 A씨가 경매기일을 연기해주고, 법원 직원과 지인들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받았으며 몇 차례 유찰된 이 스포츠센터를 29억3000만원에 부인 명의로 낙찰받았다"며 A씨를 광주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경매방해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집행관 사무원의 경매 참여는 법적으로 잘못이 없으며, 고소사실은 전적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경매정보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수원지검 강력부도 최근 해상유 관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대가성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모강인철청장(55)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전 청장은 청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해상유 관매업체 회장 신모(77)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현금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오제일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자체 감사로는 동료의식이나 미흡한 전문성으로 인해 고도화되는 공무원 범죄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민주 '이해찬 용퇴-박지원 잔류'

인적쇄신안 절충...비주류 수용 여부 촉각

민주통합당 안락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도부 총사퇴론이 이해찬 대표만 '용퇴'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남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하지만, 비주류 일각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추가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인적쇄신을 둘러싼 당내 논란의 향배가 주목된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계파공천의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당사자는 박 원내대표가 아닌 친노 세력일 것"이라며 "친노 좌장격인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문 후보가 직접 길을 뚫어주는 것이 당사자가 결단하는 형태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설

명했다. 박 원내대표가 사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본인의 완강한 반대도 있지만 호남 표심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문 후보와 이 대표는 2일 밤 비공개 회동을 가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가 조만간 무소속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물꼬를 튼다는 명분으로 자진 사퇴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내 권력투쟁 조기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아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우상호 캠프 공보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도부 총사퇴 논란과 관련 "문 후보가 근본적인 정치 변화를 위한 대안 제시 없이 인사

문제부터 거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번 주 시간을 두고 지켜보길 바란다. 아직 특정 방식으로 해결방안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박'(이해찬-박지원) 답합론에 뿌리를 둔 지도부 퇴진론이 이 대표의 자진 사퇴로 완전히 통합될 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당내 비주류 그룹은 이런 절충안에 대해 "일단 여론을 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도 동반 사퇴해야 완전한 인적쇄신이 될 수 있고, 단일화 국면에서도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 후보가 비주류 그룹의 면담 요청에 "5일 오후 4시에 만나자"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이 시점 이전에 수습 작업이 일단락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광주 중심 총장로 복합쇼핑몰
the Road Hills 더로드힐스
광주의 중심 총장로 상권에 품격이 다른 멋진 길! 유럽형 스트리트몰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비전 / 다양한 콘텐츠의 아이템을 중시합니다. 20~30대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টে으로 까다로운 입점기준을 통한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려 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좋은 아이টে으로 경영을 인정받은 오너분들에게 입점의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쇼핑하는 유럽스타일 스트리트형 복합쇼핑몰
12월말 오픈예정
기회를 잡아라!
신축상가입점에 따른 권리금 無
최다 유동고객에 의한 광주권 최고 중심상권
최소 투자비
전문가에 의한 지속·체계적 홍보관리
총별 이벤트 공간 제공
전문 홍보관리팀 상주근무
40.3m / 46.7m / 66.0m / 83.4m / 96.9m / 127.5m / 139.7m
임대(분양) 문의 062.232.9106 010.4064.9106